

“지역 상생” 영광 안마해상풍력 추진 ‘본격’

새로운 에너지 개발 모델 ‘주목’

14MW급 풍력발전기 38기 설치

‘기본소득’ 형태 수익 제공 구조

안마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영광 낙월면 앞바다에서 본격화되며,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7일 안마해상풍력(주)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4MW급 해상풍력 발전기 38기를 설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425억원에 달한다.

안마해상풍력은 2022년부터 민관협업체를 구성해 지역 어업인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협업체에는 영광군, 어업인 대표, 사업자 측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영광군 어민회와의 공식 협상 5회, 영광군 주최 간담회 2회를 포함해 30회 이상의 협의가 이뤄졌다.

이는 행정 절차를 넘어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신뢰 기반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지난 1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어업인 협의체와 첫 공식 보상 협의가 진행됐다. 사업자는 어선 및 어업허가 1척당 2천만원 수준의 보상을 제시했다. 이는 전남지역에서 통상 거래되는 어선·어업허가권 최저 수준인 약 4천만원을 감안할 때 현실적 수준 이상의 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적당 5천만원 보상’을 주장하면서 협의는 결론 없이 종료됐다.

이에 업체는 “구체적 기준 없이 과도한 요구가 전례로 남을 경우, 향후 해상풍력 사업 전반의 추진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마해상풍력은 단기 보상을 넘어 어업인 참여형 장기 수익 모델을 통해 약 1천명의 피해 어



안마해상풍력 조감도.

〈안마해상풍력 제공〉

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연간 소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공익 수익 배분을 통해 ‘기본소득’ 형태의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지속가능한 상생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지보수(O&M) 센터 건립,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단순 개발을 넘어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 구축이 목표다.

안마해상풍력 관계자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지역 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 사업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며 “이 과정이 영광군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마해상풍력은 주민참여형 구조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제도, 개발이익 공유, 지방세 납부 등 다양한 지역환원 방안을 마련했다.

총 20년간 영광군에 환원될 재정 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4GW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이 진행될 경우 지역 환원 규모는 최대 8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김동규 기자

진도군보건소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호평

전문간호사 방문…맞춤형 지원

진도군이 건강한 출산과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이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와 생후 24개월 이하의 영유아 가정에 진도군보건소의 전문간호사 2명이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는 신청자에 대해 임부 등록을 하고 대상자에 대한 건강평가 후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기본과 지속 방문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주요 서비스에는 ▲산전·산후 건강상담 ▲영유아 발달 단계별 건강검진 및 발달지원 ▲모유 수유 및 영양관리교육 ▲산후 우울·양육 스트레스 예방 상담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이 있다.

사업에 참여한 한 산모는 “보건소에서 전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육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며 “정서적 지지는 물론 남편도 육아의 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을 해줘 고맙다”고 전했다.



진도군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관내 영유아 가정을 찾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첫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겪는 건강과 육아 고민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61-540-695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박세권 기자

목포시, 상반기 김 수출액 6% ↑ …최대치 경신

목포시는 “2025년 상반기 김 수출액이 8천126만 달러(약 1천125억)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7천667만 달러 보다 6% 증가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 수출액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목포시 전체 수출액은 9천216만 달러로, 이 중 김 수출이 88%를 차지하며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김 수출액 1억3천308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김 수출액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목포시는 김 산업을 포함한 수산식품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천137억원을 투입, 연면적 4만6천612㎡ 규모의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마른김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마른김거래소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조영매 목포시 수산산업과장은 “목포의 김이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인정받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수산식품수출단지과 마른김거래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목포는 명실상부한 수출 전략형 수산식품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강진군 덕동경로당 어르신들이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내·안·애’에 참여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내·안·애’ 호응

강진군보건소는 7일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2025년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내·안·애’(17)’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매주 화요일, 강진읍 덕동경로당 어르신 13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은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표준

화된 회기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감정 표현하기 ▲스트레스 관리법 ▲수면·통증 개선 습관 ▲생명존중 교육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원예치유, 웃음치료, 영양관리, 아로마 테라피 등 체험형 치유 프로그램도 병행돼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왔다.

보건소는 참여자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

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개별 상담 및 고위험군 발굴도 병행해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립감과 우울감 해소 등 정서적 지지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역 노인 인구가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만큼 노인 자살과 우울 문제는 중요한 보건 과제”라며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조기 대응과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신안군, 8월 주민세 납부기간 운영

16일부터 31일까지

신안군은 7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세 개인분 1만9천817건에 대해 총 2억1천7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만1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단체가 대상이며,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원이며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면적에 따라 1㎡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2023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에서 제외돼 부담이 완화됐다.

군은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이 반영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세급납부 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061-240-88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안=양훈 기자



완도군, 청소년 성장·보호 안전망 구축 ‘주력’

13억원 투입…25개 사업 추진

완도군은 7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 13억원을 투입, 25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완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수련시설과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완도·노화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 동아리 활동, 방과 후 아카데미 등 15개 사업을 통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청소년자치활동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1층 휴게실은 ‘청소년 자유 공간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해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며 건전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388 청소년 지원단 운영 등 7개 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진로·직업 체험, 검정고시 지원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단체 등 민·관이 협력해 ‘청소년 범죄 예방 합동 캠페인’과 ‘유해환경 지도·단속’도 꾸준히 실시하며 청소년 보호에 힘쓰고 있다.

박미경 가족행복과장은 “청소년이 지역의 인재이자 건강한 군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해남군,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비용 지원

매주 월·목…해남보건소서

해남군은 7일 “11일부터 E-8 비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1인당 3만3천원의 검사비 전액을 군비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가 관의 지정 병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시간과 비

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는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등 4종을 대상으로 간이 소변 키트를 이용해 진행되며, 올해 말까지 약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검사는 매주 월·목요일 주 2회 정기 운영된다.

검사 결과는 농정과의 해양수산과를 통해 통보되며, 양성 판정 시에는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확진 절차가 이어진다. /해남=박필용 기자